

# 법원 사람들

Supreme Court of Korea



## 배우는 즐거움

너머의 시선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산다는 것

## 함께하는 즐거움

법원 그곳  
춘천지방법원

## 공감하는 즐거움

트렌드 이슈  
필(必), 환경시대

Vol.405 / 2019

# 01

# CONTENTS

Supreme Court of Korea  
2019\_01\_vol.405



06 page



16 page

## Special Theme

### 배우는 즐거움

- 04 **인사이드 스토리**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
- 06 **너머의 시선**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산다는 것
- 10 **人side 인터뷰**  
바꾸고 싶다면 몸과 시간 패턴을 복사하라  
- 인생도서관 김우성 대표
- 14 **오늘의 기록**  
'2019 트렌드' 큐레이션

## Work & Balance

### 함께하는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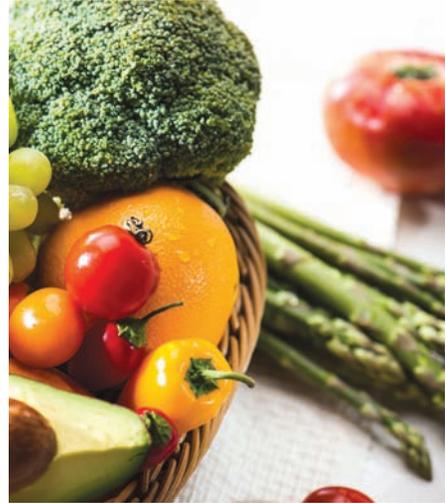
- 16 **법원 그곳**  
평청송 같은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다  
- 춘천지방법원
- 20 **공감**  
올해에는 000을 꼭 이루고 싶다?!
- 22 **밀줄 긋는 여행**  
오늘도 육림고개로 간다  
- 춘천 육림고개
- 28 **현장 속으로 1**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 현장
- 30 **현장 속으로 2**  
2018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32 **법원으로의 초대**  
법원에서 꿈에 한 발짝 다가서다
- 34 **스타일링룸**  
법원의 귀염둥이, 헤르미온느로 변신!  
- 허은정 대전지방법원 전안지원 아산시법원 실무관

- 38 나의 일 나의 삶 1  
야구에 대해서
- 40 나의 일 나의 삶 2  
스페인·포르투갈 법원 방문기
- 44 어린이 소식지  
징역과 금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외 1
- 46 생활 법률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Trend & Lounge

공감하는 즐거움

- 48 미디어로 보는 질병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황반변성'
- 50 트렌드 이슈  
필(必), 환경시대
- 52 법원 NEWS
- 54 공감우체통
- 55 얼마나 보드Lounge



48 page



통권 405호 발행인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발행일 2019년 1월 1일  
 편집인 공보관 박진웅 편집총괄 홍보심의관 조영  
 편집기획팀 김태욱, 송소현, 이경미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02)3480-1456 팩스 02)533-5484  
 홈페이지 <http://people.scourt.go.kr>  
 기획·디자인·인쇄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COVER STORY

이번 달 표지 콘셉트는 '목표 달성'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남녀의 모습을 통해 목표 달성의 가치와 즐거움을 표현하였습니다.

##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

목표는 많은 사실을 함의합니다.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자 결연한 개인의 지이며, 자기와의 은밀한 약속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드는 들뜨고 비장한 기분은 꽤 매력적입니다. 목표를 세웠을 뿐인데, 스스로가 왜 이리도 달라 보이는지.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중도에 포기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허물어지는 것 역시 목표라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우고 변화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 목표가 시작됩니다. 잠시 멈췄을 뿐, 목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전진해온 방향을 오랫동안 기억하니까요. 목표를 세우는 순간,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뀝니다.



goals



#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산다는 것

우리의 머리 위에 새로 뜬 해가 대지 위에 황금빛을 고루 비춘다.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채 새해 첫날을 맞는다. 반칠환 시인은 <새해 첫 기적>을 통해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굴뚝이는 굴렀는데/ 한낱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라고 노래했다.

글. 장석주 시인



### 모두가 같은 시각에 새해를 맞이하는 기적

시인은 황새·말·거북·달팽이·곰뱅이·바위들이 날고, 뛰고, 걷고, 기고, 굴러서 한 날 한 시에 도착해 새해를 맞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 오는 방법은 제각각 달라도 똑같은 시각에 새해를 맞는 것은 기적이다. 아파서 병상에 누운 이도, 평생을 일에 매어 산 이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도, 고향을 떠나 오래 객지를 떠도는 이도, 산중에서 묵언 수행을 하는 이도, 강물을 바라보며 흐느끼는 이도, 다 평등하게 한 날 한 시에 새해를 맞는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청신한 꿈과 목표를 마음으로 그려본다. 새해는 지나간 시절을 과거로 덮고 새로 시작하기에 맞춘 인 때이다.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 바위나 균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우리는 생각하고, 무언가를 동경하며 꿈꾼다. 직업이나 환경, 삶의 방식이 다르더라도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목표를 세운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행동 방식의 규칙들이 세워진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실천의 규범들을 따르며 앞으로 나아간다. 반면 목표가 없다는 것은 실천의 규칙과 규범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은 나날을 되는 대로 살아가기 쉽다. 아무 꿈이나 목표도 없이 그저 무리에 휩쓸려 자기 족대 없이 부화뇌동하기 쉽다. 그런 무지몽매한 태도는 자아실현을 방해한다.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

### 실현 가능한 목표 수립이 필요할 때

새해 첫 날,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고 결연한 꿈과 목표를 세우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아 성장의 동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꿈과 목표가 새해의 기적을 창조한다. 그런 까닭에 꿈과 목

표가 없는 인생이란 서글픈 일이다. 꿈과 목표를 가짐으로써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타인과 다른 자아로 성장하며, 단단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서게 된다.

목표들은 행동을 예비한 씨앗이다. 그것은 노력과 의지의 동기이자 도약의 시작점이다.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에 재능과 열정을 집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신이 똑똑하



다면 원대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울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창한 목표는 우리를 자주 좌절에 빠뜨리고, 자학과 자책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 불만족한 삶을 낳는 원인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일어나기를 추구하지 마라. 일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모든 것이 평온해질 것이다.” 목표는 항상 실현 가능성이 높고, 현실성이 있어야만 한다.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작고 확실한 목표를 하나씩 이루는 가운데 삶은 더 향상되는 법이다. 좋은 삶을 원한다면 삶을 긍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표가 거창하고 허황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의지의 범주에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아내지 않은 날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나짐 히트메크, 《진정한 여행》 중에서



대개 꿈과 목표는 인생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한다. 가장 훌륭한 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날들, 불멸의 춤 등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인생에서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 나아간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향해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바다를 향해 출항의 신호를 힘차게 울리며 나아간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단지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어리석다.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의 장(場)인 자연, 나날의 기후, 건강, 오후의 빈둥거림, 사람들의 미소와 친절, 미각의 즐거움, 일상의 경험에서 얻는 소소한 기쁨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 살아보니, 인생이 언제나 인과적인 것은 아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 현재를 아름다운 순간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좋다. 실패에 민감해지거나 우울과 짜증에서도 벗어나라.

### 느리고 단순한 삶을 긍정하며

내 목표는 '슬로 라이프', 즉 더 느리고 단순한 삶이다. 불안과 무기력이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 욕심 없이 사는 것도 삶의 빛나는 목표가 될 수 있다. 인생의 목표는 폭풍이 이는 바다에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당연히 삶의 만족감은 더 커진다. 목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넓고 크다. 항상 삶을 긍정하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현재에 집중하라. 삶은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로 빛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마음에 끌리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라. 목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발전을 차곡차곡 쌓아 지속하는 성장을

이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와 소명을 가진 이들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



몸과 시간은 모든 인간의 공통 자원

## 바꾸고 싶다면 몸과 시간 패턴을 복사하라

인생도서관 김우성 대표

글. 최덕철\_사진. 김인규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을 때 안심한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는 불안이 목표를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목표는 정말 옳은 목표일까? 나를 행복한 미래로 안내해줄 것인가? 김우성 대표는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나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목표와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 질문, 시간관리법, 롤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나를 성찰하는 공간, 인생도서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질문이다. 혹은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러한 물음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해답을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김우성 대표가 인생도서관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물음에서다. 인생도서관은 스스로 ‘나’를 이해하고 ‘우리’를 알아가고, 함께 인생을 성찰하기 위한 다양한 툴킷, 프로그램,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공간이다.

“나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인생도서관을 시작하게 된 이유예요. 인생도서관은 자신의 인생을 한 눈에 정리하고 조망해보며 삶을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는 건축가이기도 하다. 건축을 전공했고, 복합문화공간 살롱드팩토리의 대표를 겸하며, 건축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건축이라고 하면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일로 생

각할 수 있지만, 저는 건물의 콘셉트를 창조하고, 동선을 규정하며,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합니다.”

그는 자신의 건축학적 시선과 작업 방식을 사람의 삶을 성찰하는 행위에 접목했다. 건축설계도처럼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미트릭스(ME:TRIX)’를 활용하면, 바둑판 같은 미트릭스의 각 칸을 채워 삶을 시각화하여 본인의 특정 패턴이나 맥락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행복한 미래의 출발점은 현재

목표는 나를 성장시키고, 경쟁사회 속에서 좀 더 높은 위치를 점하는 수단이 되며, 때로는 행복의 원동력이 된다. 인생도서관은 이런 목표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은 변화의 방향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 지 이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운다고 생각해요.”

그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의 나와

“사람들은 변화의 방향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운다고 생각해요.”



인생도서관은 개인의 삶을 성찰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위해 미트릭스(ME:TRIX)를 활용한다.



미래의 나 사이의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목표를 세우려면 미래와 현재의 나 사이에서 무게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의 모습에만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현재의 삶에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래의 모습을 한 가지로 고정시키는 행위는 선택의 폭을 좁혀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미래를 원한다면 현재의 모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추천한다.

“목표는 미래지향적인 행위가 아니라 현재지향적인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를 관찰하고 성찰하는 행위에 집중하려고 해요. ‘어떤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기보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서 나의 방향을 탐색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 ‘인생 질문’이 삶의 방향 바꿔

김우성 대표는 현재의 자신을 알아야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책을 일 년에 52권 읽으려면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된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모든 사람의 하루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생각해보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배분해야 일주일에 한 권을 읽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미래를 보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 현재 위치와 예상목적지와 경로를 한눈에 보여주듯 현재를 알면 미래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간과한 채 미래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인생 질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지만 인생 질문을 만들면 삶을 잘 정리할 수 있고 복잡도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인

생 질문에 특별한 형식이나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소개팅에 나갔다고 가정해볼게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 경우 우리는 다양한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해결해가며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죠. 그렇듯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타자화하여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면 그 모습을 더 이해하고,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꿈꾸는 미래 모습에 대해 질문하고 알려고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각자의 인생을 관통하는 ‘인생 질문’이다.

“‘내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맛집은 몇 개나 될까?’가 나의 인생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삶이란 어떤 것일까?’가 질문이 될 수 있죠.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삶의 질과 양상이 달라질 거예요.”

### 롤모델의 시간을 복사할 것

롤모델을 찾는 것도 삶의 방향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롤모델과 닮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김우성 대표는 롤모델의 사고 패턴과 시간 패턴을 복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인생도서관의 프로그램 중 시간관리법에 관한 수업이 있어요. 닮고 싶은 사람의 시간을 복사해보는 수업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구체화하고 복사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공통된 자원은 몸과 시간이므로, 내가 추구하는 롤모델이 하루 중 몇 시간을 자고, 하루 중 몇 시간 동안 노력했는지 등 몸의 습성과 시간 패턴 등을 알아야 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롤모델의 현재 모습에 집중할 뿐, 그가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에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는 나와 롤모델의 몸과 시간 사용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닮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삶의 질과 양상이 달라질 거예요. ”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그의 롤모델이 궁금해졌다. “개인적으로는 예수, 부처, 공자 같은 인물이 롤모델이에요. 그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치열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아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완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환경적인 측면으로 개인의 가치를 정

의한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면 인간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분명히 더 즐거운 목표와 방향이 생길 겁니다.”

# ‘2019 트렌드’ 큐레이션

글. 편집실

불확정, 불확실이란 시대 상황을 반영하듯 각종 매체를 통해 ‘2019년 트렌드’가 쏟아졌다. 경제, 라이프스타일, 모바일, 재테크 등 분야별로 수십 권의 책이 ‘핫’이라 이름 붙이고, ‘유행’이 될 거라 진단한다. 이런 트렌드 진단의 홍수 속에서 법원가족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한다.

## 새해 계획

모 취업사이트의 설문에 따르면 2018년 새해 계획을 꾸준히 지켰는지에 대한 물음에 26.1%가 ‘한 달도 못 지켰다’, 45.1%가 ‘한 달 이상은 지켰다’, 28.8%가 ‘꾸준히 지켰다’라고 답했다. 꾸준히 지킨 비결에 대해선 ‘강의 수강, 헬스장 등록 등 비용을 들였다’란 답변이 34.8%로 가장 높았고, ‘중간중간 달성 정도를 점검하며 동기 부여를 했다’, ‘지인에게 계획을 알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달성에 따른 보상을 설정해 동기 부여를 했다’ 순으로 답했다.



## 1인

2018년은 유튜브가 대세일 만큼 1인 미디어 전성시대였다. 2019년엔 SNS를 기반으로 ‘1인 마켓’(세포마켓)이 새로운 유통질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제 단순 ‘마케팅’을 넘어 세분화된 타겟과 니즈에 충실한 ‘컨셉팅’이 시장 경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 주 52시간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에 대한 니즈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 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 법적으로 허용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기업의 조직문화가 한층 유연하게 변모할 전망이다.



## 5G

2012년 4G LTE 출시 이래 우리나라가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특징으로 모바일 라이프스타일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GB 영화 한 편 다운로드에 LTE로는 약 16초가 걸리는 것에 비해 5G를 통하면 0.8초면 완료된다.



## 반려동물

한국펫사료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28.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또한 2020년에 6조 원에 달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세에 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 산업이 확장되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 장소 에티켓이 더욱 중요해졌다.





# & Work Balance

## 함께하는 즐거움

춘천지방법원에는 평청송이 자랍니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춘천지방법원 가족들과 평청송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 창업 청년들의 꿈과 노포들의 추억이 어우러지는 육림고개도 걸어봅니다. 법원도서관이 '법마루'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과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시상식 현장도 준비했습니다. '헤르미온느'로 변신한 법원가족의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 춘천지방법원

### 평청송 같은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다

글. 최덕철\_ 사진. 김민규

춘천지방법원에 들어서면 평청송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는다. 사시사철 도도한 기상을 자랑하는 평청송은 겸손과 사랑을 지향하는 춘천지방법원과 꼭 닮아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춘천지방법원을 찾아가 본다.

#### 춘천지방법원에는 평청송이 자란다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사법기관으로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전역을 담당한다. 관할 구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16.9%로, 전국 법원의 관할 지역 중 두 번째로 크다. 춘천지방법원은 본원과 관내 4개 지원(강릉, 원주, 속초, 영월), 12개 시·군 법원 및 등기소(인제군,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삼척시, 동해시,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으로 구성된다. 본원과 관내 지원을 통틀어 법관 62명을 포함, 총 5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10년 2월에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원 외재판부가 개소되어 현재 실질적으로 2개 재판부가 운영 중이다.

춘천지방법원은 1895년 5월 15일 춘천재판소로 개소하여 1945년 10월 11일 춘천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위치의 청사로는 1975년

10월 4일 신축, 이전하여 그동안 수회의 증축을 거쳐 오늘날 모습을 갖추었다. 춘천지방법원을 이야기할 때는 ‘평청송’을 빼놓을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에 들어서면 반송(盤松)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는데, 이 나무가 바로 평청송이다. 그루터기에서 10개 정도의 줄기가 났고 고르게 퍼진 이 나무는 주변 나무의 햇살을 가리지 않으면서 줄곧 도도한 기상을 자랑하여 춘천지방법원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수령(樹齡)은 60년 남짓. 원래는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모래제에서 자생하던 나무로 ‘법원과 함께 평화롭고 푸르라’는 뜻으로 평청송(平靑松)이라 이름 붙였다.

### 지역사회를 잇는 징검다리

춘천지방법원에는 높은 담장이 없다. 담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꽃과 나무가 자란다.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법원을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을 꽃과 나무에 담은 것이다.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원 지역은 넉넉한 인심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어 다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 이러한 지역 발전 과정에서 급증하는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강원 지역이 변함없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할 수 있게 춘천지방법원은 ‘좋은 재판’에 각별히 신경 쓴다. 춘천지방법원 김용빈 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활짝 열어둔다. 지역 원로 및 각계 대표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시민사법위원회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사법참여단도 운영해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  
‘평청송’은 주변 나무의  
햇살을 가리지 않으면서  
줄곧 도도한 기상을  
자랑하여 춘천지방법원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



지역사회 미래의 주역이 될 지역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지역학생들의 법원 견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법관이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찾아가는 법률강연'도 진행한다.

매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론, 법정퀴즈쇼, 모의재판 경연 대회 등을 개최하는 '사법캠프'는 매년 반응이 뜨겁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법원의 날 주간에는 시민과 함께 법정에서 모의재판과 재판 과정에 대한 강연을 겸한 특별강연 '살아있는 법률강연'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강원도교육청과 법 교육 관련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치유사법 구현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 경청

춘천지방법원은 치유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과 그 보호자가 참여하는 가족캠프 '사이다 캠프[사랑하는 이(마음) 다(주는) 캠프]', '소나기 캠프[소(통), 나(눔), 기(쁨)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혼 위기 가족구성원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미사고 캠프[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캠프]' 및 '부부에 캠프'도 진행한다.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믿음 아래, 가족구성원들의 관계 회복을 돕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의 판사와 직원들은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급식 봉사 및 축구 교류를 통해 멘토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관할 구역이 넓어 멀리서 소년재판을 받으러 오는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강릉, 원주, 속초, 영월 지역에서 '찾아가는 소년 법정'도 열고 있다. 김용빈 법원장은 "소년재판의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강원 전체 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판 받기 불편한 경우가 많고, 교류의 필요성이 있는 원거리에 있는 유관기관과의 교류도 쉽지 않아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2016년에는 전국 최초로 소년보호사건에서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센터와 연계한 '인문치료 수강명령'을 도입하여 화제가 됐다. '인문치료 수강명령'은 인문학적 치료를 통하여 보호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양분을 제공한다는 것에서 그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소송구조제도와 증인지원제도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운영한 '다문화가정 스마트 법률학교'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법률학교' 역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춘천지방법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자매결연마을 봉사활동(화천군 해안면), 김장봉사 및 위문품 전달(밀알재활원)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



춘천지방법원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학생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INTERVIEW



**김용빈** 춘천지방법원장

## “ 좋은 재판은 당사자와의 면밀한 소통에서 시작돼 ”

저는 춘천지방법원의 소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사명인 법치주의의 구현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좋은 재판’을 하려면 재판의 결론도 보면 타당하여야 하지만 재판 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재판을 받으러 온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표현되고 우리가 이를 경청할 때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송구조제도와 증인지원제도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스마트 법률학교’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법률학교’ 등을 통해서도 누구나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강원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법원 직원 여러분에게는 직장이자 삶의 터전인 법원이 밝고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두루 살피며 의견들을 모으고, 제가 직접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 역사

**1895. 5. 15**

춘천재판소로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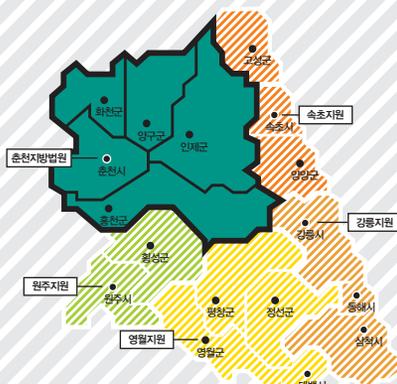
**1945. 10. 11**

춘천지방법원으로 명칭 변경

**1975. 10. 4**

현 효자동 청사

### 관할구역



구분/법원명	관할구역	인구 (2018. 11. 30. 현재)	면적 (㎡)
법원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1개 시 4개 군)	431,314	6,152.60
강동지원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3개 시)	372,832	2,407.87
원주지원	원주시, 횡성군(1개 시 1개 군)	390,612	1,866.37
속초지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1개 시 2개 군)	137,188	1,396.69
영월지원	영월군, 태백시, 정선군, 평창군(1개 시 3개 군)	165,114	4,114.80
계		1,497,060	15,938.33

### 조직구성





### 춘천지방법원 사람들이 대답한

## 올해에는 000을 꼭 이루고 싶다?!

구성. 최덕철\_ 사진. 김인규

바야흐로 황금돼지의 해가 도래했다. 새해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일.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 춘천지방법원 사람들이 답한 2018년의 기억과 2019년의 목표를 통해 우리의 새해 계획도 다시금 점검해보자.



유재영 판사

새해 목표  
**고칠 곳 없는  
완벽한 판결문**

#### 공통 질문

- ❶ 2018년을 돌아보며
- ❷ 올해 꼭 하고 싶은 일
- ❸ 올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 ❶ 춘천지방법원에서 2년 연속 형사재판을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민사재판을 맡게 되었어요. 특히 민사항소부에서 실생활과 밀착된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새롭게 배운 것들이 많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 ❷ 업무적으로 야심 찬 목표를 하나 세웠는데요. 고칠 곳이 없는 완벽한(?) 판결문을 쓰는 것이랍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완성도 높은 판결문을 쓰고 싶어요. 취미 겸 운동으로 발레를 꽤 오래 배웠는데, 올해는 취미발레 콩쿠르에 나가보고 싶어요.
- ❸ 지금 남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올해에는 어딘가에 계실 미래의 남자친구를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하하.

**윤찬호 실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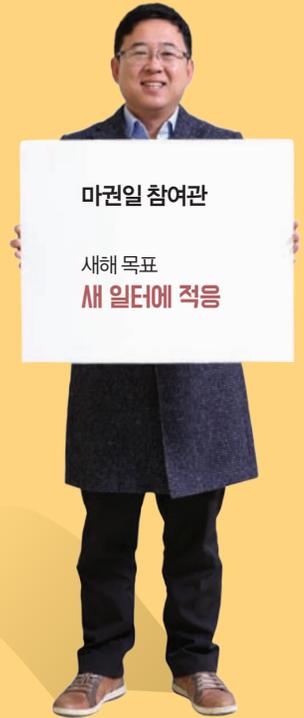
새해 목표  
**법원퀴즈 만점**



- 1 조금씩 호봉이 올라 월급도 늘다 보니 전부터 하고 싶었던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동보호 기구에 매달 자동이체를 하는데, 작년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또 부모님에게 가까운 해외여행을 보내드린 것도요. 부모님이 여행 다녀오시고 좋았다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웃음,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 2 코트넷을 보면 이달의 법원퀴즈가 있는데, 올해 목표는 1월부터 12월까지 퀴즈 정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어 업무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 3 교육원에서 함께 한 13반 동기들이 보고 싶습니다. 교육원을 수료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어느덧 2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올해에는 교육원 반원들을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13반 동기들아, 내 연락을 거부하지 말아줘~!

**마권일 참여관**

새해 목표  
**새 일터에 적응**



- 1 작년에 가장 잘한 일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몸 아픈 데 없이 건강했던 거예요. 가장 후회되는 건 아버지가 작년 7월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못한 효도를 돌아가신 뒤에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 2 올해의 계획은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익히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 3 만나고 싶은 사람은... 글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미 다 만났는걸요. 하하.

**이윤실 속기실무관**

새해 목표  
**운동으로 건강해지기**



- 1 워킹맘이다 보니 한창 엄마와 정서적 교감을 해야 할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법원도서관에서 <못 참는 아이 육하는 부모>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제게 꼭 필요한 좋은 정보들이 많아 큰 도움이 되었어요.
- 2 얼마 전 법원 체력단련실에서 인바디를 측정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 놀랐어요. 제 몸이 이렇게나 망가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올해에는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을 챙길 생각입니다.
- 3 위에서 언급한 책의 저자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게는 요즘 최고의 멘토이시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책으로 다 전달하지 못한 육아 노하우나 대인관계, 인생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 밑줄 긋는 여행

세렌디우

상가임대



육림고개를 오르는 사람들은

시간여행자가 된다. 트렌디한 감성의

상점과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받아낸 노포들이 함께 자리한

이 낮은 언덕을 오르는 잠시나마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행위 같다.

청년들의 꿈이 성장하고,

노포 주인들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육림고개를 걸어본다.

# 꿈과 추억이 공존하는 공간 오늘도 육림고개로 간다

글. 최덕철\_ 사진. 김인규





01\_

육림고개는 추억의 공간이다. 고개가 전성기를 누리던 1980년대부터 운영 해온 노포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 그리운 육림극장의 추억

이 고개가 육림고개라 불린 건 육림극장 때문이다. 춘천 최초의 영화관인 육림극장이 고개 입구에 문을 열면서 이곳은 자연스럽게 육림고개로 통했다. 그 전까지는 '미가리고개'라 불렸던 곳이다. 중앙시장과 육림극장을 잇는 이 고개는 1980년대 춘천지역 최고의 상권을 형성하며 전성기를 누린다.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고, 흥정하는 행위를 떠나 사람들은 이곳에서 만나 웃었고, 소식을 전했으며, 정을 나누었다. 사람 냄새 나던 육림고개는 1990년대 주변에 다른 상권들이 형성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하나 둘 발길을 끊자, 상점들도 짐을 싣다. 육림고개

의 침체기는 꽤 오랫동안 이어진다. 2006년 육림고개를 지키던 육림극장도 최신식 멀티플렉스 극장의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기에 이른다. 그렇게 육림고개의 전성기는 시간 속에 박제된다.

하지만 아직도 이곳은 육림고개라 불린다. 가장 찬란했던 시절과 함께한 이름. 주변의 육림미용실과 육림슈퍼, 육림약국 등은 여전히 남아 그 시절을 기억한다. 지금도 택시 기사님에게 육림고개에 가자고 하면 '육림극장이요?'라고 되묻는 걸 보면 시골벽적이고 따뜻한 육림고개의 풍경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직 살아있는 듯하다.

### 육림고개를 일으킨 부활의 날갯짓

49개 점포 중 빈 가게가 37개에 이를 만큼 육림고개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 젊은 세대에게 육림고개는 한때 융성했던 추억 속 공간으로 정의되어 갔다. 이들은 카드결제도 편하고, 상대적으로 더 청결해보이는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선택했다. 육림고개 상인들이 이 내리막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너무도 빠르게 변해갔다. SNS가 마케팅의 중심이 되고, 유통 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평균 50대 이상의 상인들이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육림고개가 본격적인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한 건 2015년의 일이다. 막걸리촌 특화거리사업이 신흥탄을 쏘아 올렸다. 춘천시가 육림고개의 상권 부활을 위해 고개 200m 구간을 막걸리촌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전주 삼천동 막걸리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된 이 사업은 상인 스스로 업종을 바꾸거나 창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민주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걸리촌 조성사업이 이뤄졌다. 막걸리 가게들의 실내 인테리어는 공공미술 작가들이 도와 의미를 더했다. 막걸리 가게와 함께 한방카페와 커피집, 창작 공방 등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육림고개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손님들도 점차 늘어났다. 유동인구가 늘자 육림고개를 끝까지 지킨 상점 주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다시 별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 청년 창업의 꿈을 불러모으다

육림고개를 살리려는 노력은 다음해에도 이어졌다. 춘천시와 중소기업청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육림고개의 상권도 회복할 수 있도록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전개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입

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해 공방과 수입 빈티지 의류매장, 닭갈비 가게 등 10개 점포가 문을 열게 된다.

2017년에도 '청년몰 사업'이 전개되면서 육림고개 활성화 움직임이 계속됐다. 이 역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춘천시가 육림고개의 빈 점포를 장기 임차해 만 19~39세의 청년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몰은 식도락 마당

#### 02\_

청년들의 꿈이 육림고개에 스미고 있다. 트렌디한 감성으로 꾸민 청년상점들.

#### 03\_

계단을 가게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로컬푸드 등 먹거리), 잔재비 마당(금속, 나무, 가죽 공예, 체험공방 등), 보부상 마당(레고, 건담, 프라모델, 피규어, 키덜트 상품 등), 자연공간 마당(꽃, 화분, 이끼 조형물) 등 네 가지 테마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이뤄졌다. 춘천시는 인테리어와 컨설팅, 홍보 마케팅 비용 등도 지원하며 사업에 총 15억 원의 국비를 투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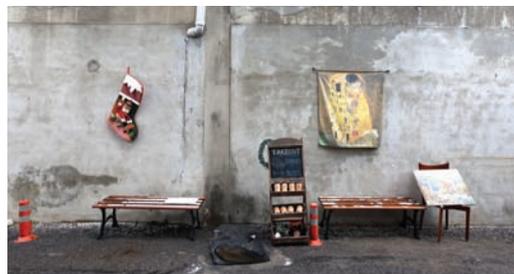
육림고개가 지금처럼 활성화된 것은 2015년부터 매년 열린 플라마켓의 역할도 컸다. 육림고개 주민들이 수공예품과 중고 서적, 중고 장난감은 물론 직접 만든 디자인제품과 예술품, 생활용품 등을 내놓으며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콘서트와 체험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알뜰시장을 넘어 축제의 장으로 규모를 키워나갔다. 청년몰 상점 주인들도 '맛보기 체험' 점포를 운영하는 등 즐길 거리를 더했다. 육림고개 플라마켓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친구와 가족, 연인 등 다양한 인파가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몰려들었다. 지난해까지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은 3만 명에 달한다.

## 꿈과 추억이 공존하는 시간

이제 육림고개는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청년 상인들의 트렌디한 감각과 노포(老鋪)들의 아날로그 감성이 어우러지는 '감성 고개'가 바로 육림고개이다. 청년 상점과 노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신(新)과 구(舊)는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성장한다. 노포 사이로 청년들의 아기자기한 상점이 문을 열고, 청년들의 푸른 희망과 꿈 사이로 노포 주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난다. 이곳을 찾는 젊은 손님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사고, 트렌디한 음식을 사먹으며 육림고개의 시간을 가로지를 것이다. 노포들은 옛 육림고개의 추억과 시간의 깊이가 느껴지는 음식들을 대접하며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옛 육림고개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진한 향수를 선물한다. 육림고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물건만 파는 공간이 아니다.

오늘도 육림고개에서는 청년들의 꿈과 노포 주인들의 행복이 팽창한다. 청년들에게 육림고개는 냉엄한 벽에 부딪쳐 엄두조차 낼 수 없던 꿈을 실현시켜준 따뜻한 등지고, 노포 주인들에게 육림고개는 청춘을 몸 담았던, 다시 돌아온 보금자리이다.

육림고개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꿈과 추억이 공존하고 따뜻한 감성이 너울지는 이곳, 육림고개로 사람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죽림동 성당

육림고개를 조금만 벗어나면 죽림동 성당을 만날 수 있다. 죽림동 성당은 순교 역사와 전례 공간의 예술미를 두루 갖춘 성당이다. 내부 기둥이 없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 석조 건축물(등록문화재 제54호)이기도 하다. 1956년에 봉헌해 1998년 대규모 보수와 2013년 성역화 사업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한국 가톨릭 미술의 보고(寶庫)'라는 평가를 받는 이곳은 6·25전쟁 때 순교한 춘천교구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사제 7명의 묘소도 조성해 눈길을 끈다.



강원도 춘천시 약사고개길 21



명동 닭갈비 골목

춘천의 대표 음식을 꼽으라면 단연 닭갈비이다. 닭고기와 양념, 다양한 식재료가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내는 닭갈비는 대중적인 맛으로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우리나라 음식 중 하나이다. 육림고개에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내려가면 춘천 명동거리의 닭갈비 골목을 만날 수 있다. 닭 조형물이 우뚝 서 있는 닭갈비 골목의 길이는 약 100m로 1968년에 닭갈비 골목이 형성됐으니 역사가 어느덧 50년을 넘었다. 이곳에는 20개에 가까운 닭갈비 전문식당이 빼곡하게 들어서 손님을 맞는다.



강원 춘천시 금강로62번길 11-1



## 국민과 함께하는 ‘법마루’로 새 출발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 현장

글: 최덕철\_사진: 김인규

법원도서관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동안 법원도서관은 주로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법조 직역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문화공간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지난달 법원도서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전 개관식 행사가 개최됐다.

### 법이 가는 길, 책으로 밝히는 법마루

법원도서관이 ‘법마루’로 새롭게 태어났다. 법원도서관이 지난 12월 11일 일산 법원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전 개관식은 법원도서관이 서초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일산 사법연수원 청사 내에서의 새 출발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자리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허부열 법원

도서관장,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내·외부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 기존의 재판 업무 지원 중심의 역할에서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마루’로 운영된다.

허부열 법원도서관장은 개관식 인사말을 통해 “법원도서관은 1989년에 개관하여 29년 동안 재판 지원에 필요한 광범위한 법률 정보를 보유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 전문 도서관으로서 이제는 국민 누구나 법률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모두의 법 길잡이가 되려 한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법률도서관의 이름을 법의 안내자, 법의 기준이란 의미의 ‘법마루’로 짓고 표어를 ‘여기는 법이 가는 길 책으로 밝히는



법마루 1층의 모습. 이곳은 일반 국민이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위한 법률 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법마루입니다라고 하였다”며 “법마루는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법 문화, 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민에게 친근한 법률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국내·외 법률 정보를 폭넓게 제공해온 법원도서관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정보의 민주화, 나아가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법원도서관의 미래 모습을 설계하고 실천해나갈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축사는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법원도서관은 대법원 판례를 영어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기관으로, 법마루 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길 바란다”라며 이전 개관을 축하했다.

현관 제막식과 기념사진 촬영 후에는 법원도서관으로 이동해 직접 열람실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경숙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장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층마다 마련된 시설과 보유도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법원도서관 ‘법마루’는 총 3개 층으로 구성되며 1층은 판례·법령집, 사법행정간행물, 교양도서

등을 보유하여 일반 국민을 위한 법률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2층과 3층은 법률도서 및 정기간행물, 서양 법률도서 등을 보유하여 법조 직역 종사자 및 법률조사·연구자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 서예문인화전도 함께 마련돼

이날에는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을 기념하여 <전국 법원서예문인화전> 특별전도 함께 마련됐다. 사법연수원 본관 로비와 법원도서관 사무동에 마련된 제8회 <전국법원서예문인화전>은 2004년부터 격년마다 열리는 전국 법원 규모의 문화행사로, 법원구성원과 유관기관의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법원과 국회를 비롯하여 유관기관에서 143명이 참가하여 155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문용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이 작품을 출품하였고, 호문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사법정책연구원장), 손용근 변호사, 유원규 변호사, 한위수 변호사, 서예가 조재호 등 각급 법원 지도자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출품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전 개관식에 참가한 인사들은 법원도서관을 둘러본 뒤 서예문인화전 전시회장으로 이동해 작품을 감상하였다. 📖

전국법원서예문인화전 전시장 모습.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을 기념하여 제8회 전국법원서예문인화전 특별전이 열렸다.





## 더 다양해진 시상으로 국민 관심도 제고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취재. 안형진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해온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이 3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2월 20일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을 초대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공모전 활성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은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3개월여에 걸쳐 진행됐다. 배심원, 그림자배심원, 방청객, 변호인, 피고인 등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수기의 주제는 '나의 참여로 완성된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지난 두 번의 공모전과 달라진 점은 '장려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상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명의 장려상 수상자가 추가로 배출되는 등 기존에는 없던 시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해, 공모전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선했다.

이렇게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은 장려상 수상자 10명과 함께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 등 총 18명의 수상자를 냈다. 시상식은 평일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상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상장을 수여 받은 수상자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소감을 나눴다. 수상자들은 '판사, 검사, 변호인 등 재판을 이끌

어가는 주체 외에도 많은 법원 직원들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사함을 느꼈다'라는 의견을 나눴다. 또 '뉴스를 통해 짚막하게 재판의 결과만 볼 때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의 감흥은 확연히 달랐으며 소위 댓글 여론으로 쉽게 재판을 재단해 판단하는 것은 선부르다고 생각했으며 더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단히 서로의 소감과 의견을 나누는 수상자들은 법원 전시관으로 이동해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법원 전시관을 관람한 뒤 시상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상식을 진행했던 이승한 사법지원실장은 수상자들에게 "평일인데도 시간을 내어 시상식에 참석해주셔서



공모전 수상자들이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법원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다.

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릴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여러분들께서 쓰신 수기를 모두 소중히 읽어보았는데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라며 "여러분 모두가 국민참여재판 홍보대사가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많이 말씀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다"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

Mini Interview

- Q1.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에 응모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Q2.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상: 박혜선 님

- Q1.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했을 때 수기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글로 기록을 남겨둔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심원을 다녀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통해 판결 결과를 가볍게 접하고 나서는 '왜 이렇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지?'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배심원으로 앉아 있으니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쌓여있는 서류의 양만 큼이나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 Q2. 사실 대상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전화로 대상이라 하셔서 보스피싱인 줄 알았죠. (웃음) 너무 감사하고, 다른 분들이 더 잘 쓰셨을텐데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고 수기를 쓰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신다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우수상: 박금수 님

- Q1. 처음에는 참여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생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국민이라면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어 재판 과정을 A부터 Z까지 함께 하면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본 계기가 되었고,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Q2. 저는 참여했던 기억만으로도 뿌듯했는데, 제 생각을 정리한 글이 인정받고 모두 함께 생각을 공유하게 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다른 수상자 분들을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었던 시간도 유익했습니다.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수상: 최은희 님

- Q1. 인천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9년째 국선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이 좋다고 표현할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동료 변호사께서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권유해주셔서 글을 쓰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 Q2. 저는 변호인 입장에서 배심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막연히 추측해보는 정도였는데, 배심원으로 참여하셨던 많은 수상자께서 제 생각과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배심원들께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에 적절한 사건을 좀 더 많이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법원에서도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국민참여재판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 법원으로의 초대



##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대법원 및 법원전시관 견학기 법원에서 꿈에 한 발짝 다가서다

취재 / 사진. 안형진

학생들의 활기가 대법원을 가득 채웠다. 이번 법원으로의 초대의 주인공은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40여 명의 학생들이다. 시험을 마치고 방학을 앞둔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여유롭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호기심을 빛내며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 호기심과 열의가 가득한 시간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의 견학은 정치·경제 역량강화 수업의 연장으로 기획됐다. 학생들을 인솔한 노경완 선생님은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책으로만 보고 학습하는데, 오늘처럼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체험으로 학생들이 꿈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견학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전시관 앞에 모인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법정 앞으로 이동해 중앙홀에서 정의의 여

신상과 역대 대법원장,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학생들은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 특징을 묻는 안내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평소 법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법정에서도 대법정 의자의 수, 대법정 앞 상징물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으며 평소 법원과 재판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법정 곳곳에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내는 일이 매우 흥미로운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세세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열의를 보였다.

### 웃음 만발했던 모의재판, 판사와의 대화

대법정을 둘러본 뒤 다시 법원전시관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백설공주 강제 추행사건'을 주제로 모의재판을 이어갔다. 이웃나라 왕자의 키스를 받고 깨어난 백설공주는 '동의하지 않은 키스는 추행'이라 주장하고 왕자는 '백설공주를 구하기 위해 선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은 널리 알려진 동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재해석한 상황에 몰입하며 즐겁게 웃으며 모의재판에 임했다.

모의재판에 이어서 이정목 판사와 학생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이정목 판사는 "학생 분들이 멀리서 오셨는데, 추웠던 날씨가 조금이나마 풀려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학생들은 이곳 대법원에서는 3심 재판이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어떤 사건이 가장 판결하기 어려웠는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가장 기억에 남은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했으며 이정목 판사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생생한 상황들을 재미있게 설명했다. 학생들과의 대화를 마치며 이정목 판사는 "법원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법조인을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 즐겁고 소중한 체험에 감사

이날 학생들을 인솔했던 노경완 선생님은 견학을 마

친 뒤 "법원의 견학 프로그램이 대부분 만족스러웠지만 특히 모의재판은 오늘 오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경험시켜주고 싶을 만큼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견학에 참가한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박세민 학생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견학 프로그램으로 '판사와의 대화'를 꼽았다. "판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법조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관심이 생기게 되어 좋았다"라고 하며, "추상적으로 생각해왔던 법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김비취 학생은 모의재판이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다며 "환상적인 동화로만 생각했던 백설공주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신선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영경 학생에게는 실제 법정을 둘러봤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유년기부터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고영경 학생은 "대법원과 법정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자세히 돌아볼 수 있어 즐거운 체험이었다"며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기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오늘 법원에서의 체험이 학생들에게 새해의 꿈을 힘차게 여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백설공주 강제 추행사건'이라는 주제로 모의재판을 시행하고 있다.



함께하는 즐거움 —— 스타일링룸

## 법원의 귀염둥이, 헤르미온느로 변신!

글. 안형진\_ 사진. 김인규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모범생이자

깁쟁이. 깐깐해 보이지만 속 깊고

다정한 마법소녀 헤르미온느가 새해를

맞이해 법원가족들에게 마법을 건다.

“타란텔레그라!”

[Tarantellegra! :

영화 <해리포터>에서 춤을 추게 하는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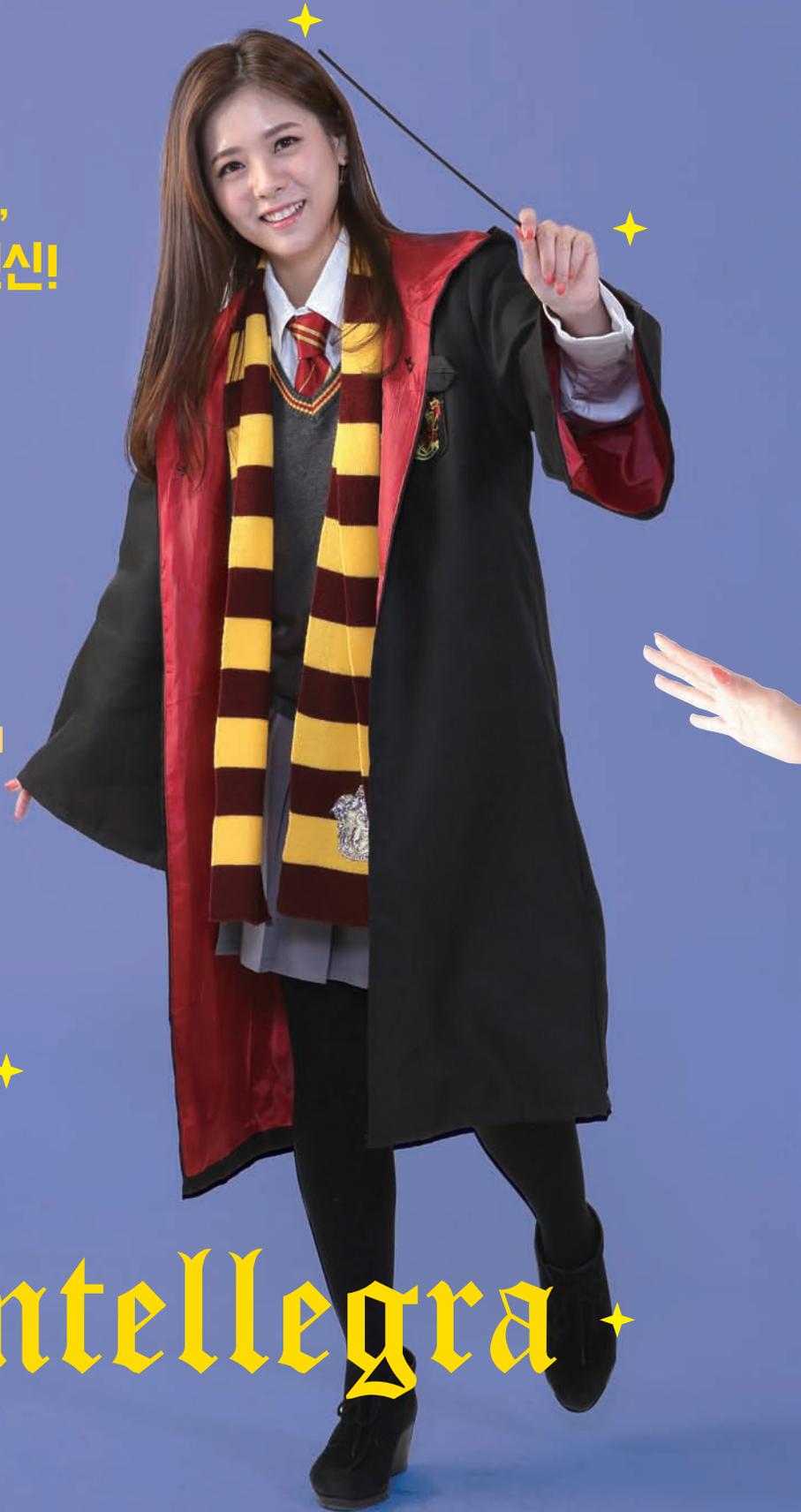
법원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춤출 수

있는 기쁜 일만 가득하세요!

허은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실무관

# Tarantellegra



# ★ Hermione ★



## #마법사가되고싶어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은정 실무관이 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는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지금은 후배도 생겨 갓 새내기를 벗어났다.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 어렵고 정신없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이 많아 좋은 점도 있다고 말하는 긍정적 사고를 가진 오늘의 주인공이다.

쭈뼛쭈뼛 어색해하며 촬영을 시작했지만, 자신만의 귀여운 매력으로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첫 촬영은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교복 콘셉트. 되어보고 싶은 영화 속 주인공은 없느냐는 질문에 허은정 실무관이 단번에 손꼽은 것이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다. 어린 시절 잠들기 전 해리포터를 읽고 나서 마법사가 되는 상상을 하며 잠들곤 했다고. 특히 학창 시절, 헤르미온느의 시계가 있다면 시험 문제를 보고 나서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으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상상했었다고 한다. 순수한 아이처럼 귀여운 상상력을 가진 허은정 실무관.

### #목표는운동 #운동은내년부터

자고로 다이어트와 운동, 공부는 '내일부터'라 했다. 허은정 실무관의 2018년 목표는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었다고. 그런데 올해의 목표도 운동이다. 겨울에는 '따뜻해지면 시작해야지', 여름에는 '더우니까 조금 선선해지면 진짜로 시작해야지!' 이제 다시 겨울이 와 버렸으니 목표는 일단 실패. 게다가 2018년에는 몸이 아팠던 날도 많아 허은정 실무관의 의지를 꺾어버렸던 일이 비일비재했다. 올해는 반드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한 해를 보내고 싶다는 그녀. 올해의 목표도 운동이라 하면 함께 일하는 아산시법원 가족들이 지겹다고 웃을 것 같았는데, 아산시법원 가족 여러분! 허은정 실무관의 결심을 응원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고마운사람들

일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없느냐는 질문에 수많은 고마운 분들의 이름이 쏟아졌다. 첫 법원 생활을 함께해주신 김태갑 판사님, 정환우 사무관님, 홍정미 계장님, 백선옥 선배님. 처음 발령받아 아무것도 모르는 허은정 실무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보듬어줘 고마운 사람들이다. 앞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더라도 추억을 기억하며 큰 힘이 될 것 같은 분들이라고. 특히 멘토가 되어준 백선옥 선배님에게는 "선배님 덕분에 힘든 법원 생활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부끄러워 말로 전하지 못했는데, 항상 저를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웨터와 프린트 체크로 러블리 UP! 화사한 하늘색으로 세련되게**  
 캐주얼룩으로는 따뜻해보이면서도 러블리한 느낌의 버건디 컬러 스웨터와 체크무늬 프린트 스커트로 모델분의 마스크에 어울리는 귀여우면서 러블리한 느낌으로 코디하였으며, 최근 유행하는 베레모를 함께 코디해 한층 스타일리쉬한 연출을 하였습니다. 페이크 퍼코트는 겨울 아우터룩으로 요즘 트렌드입니다. 화사한 하늘색이 포인트인 만큼 니어웨어로는 블랙으로 매치해 포인트 컬러를 돋보이게 하고 깔끔하고 세련되게 스타일링 할 수 있습니다.

권연화 스타일리스트

### #중압감도있지만 #더욱열심히

업무를 하면서 힘든 일은 없었을까? 허은정 실무관은 항상 중압감과 싸운다. 법원에서의 업무가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을 시작하고 업무에 적응하던 시절에는 주말에 쉬면서도 ‘실수를 하고 오지는 않았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사무실에 나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기도 했다고 한다. 이 중압감은 허은정 실무관을 힘들게 하곤 했지만 그녀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기도 했다. 그리고 민원인 분들이 허은정 실무관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는 그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 #모델은천직이아닌가봐 #법원이좋아

허은정 실무관이 스타일링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지난 여름 스타일링룸에서 우아한 바캉스룩을 선보였던 동기 한채연 실무관의 추천이 계기가 됐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채연 언니’ 한채연 실무관의 추천과 조언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지금은 한채연 실무관과 근무지가 떨어져 자주 만나기 어렵지만 항상 의지가 되고 고마운 언니라고 한다. 촬영을 마친 허은정 실무관에게 오늘의 소감을 물어보았다.

“걱정을 많이 했지만 촬영을 진행해주신 관계자 분들이 잘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막상 끝나고 나니 ‘더 잘 찍을 수 있었는데’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저의 부족함은 기술이 채워주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허은정 실무관은 “모델은 쉬운 것이 아니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제 업무에 더욱 소중함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법원가족 여러분! 춘추는 기쁜 일 가득한 새해 되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타란텔레그라!”

## 야구에 대해서

글. 김유진 실무관(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It ain't over till it's over'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전직 메이저리거 요기 베라의 명언입니다. 저 역시도 서기보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말이 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늘 가슴에 새겼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널리 알려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지만 역시나 가장 알맞게 사용될 수 있는 곳은 원래 사용되었던 야구라는 스포츠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야구란 어떤 스포츠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야구에 열광할까요?



원래 저는 야구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야구를 좋아하셔서 저에게 계속 야구의 규칙 등을 알려주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렇게 매력이 있는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어렸을 때 야구장도 자주 가고는 했었지만 저에게 야구장이란 단지 맛있는 것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곳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야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야구를 함께 보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쿠바와의 결승전을 보면서 완전히 야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전 8승, 그야말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결승전까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의 상대는 아마추어 야구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쿠바였습니다. 9회 말까지 팽팽한 승부가 계속 되었고 우리나라가 1점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쿠바가 공격인 9회 말에 안타 하나면 우리나라가 역전패를 당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쿠바 선

수가 친 공을 놀라운 수비로 막아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9전 전승 우승을 달성하였고 그 때의 짜릿함과 함께 저는 야구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야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야구에 대한 각종 지식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야구에 대한 각종 지식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야구에 대해 궁금했던 것은 '야구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야구가 시작되었을까'입니다. 야구의 기원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설은 영국에서 시작된 크리켓과 라운더즈에서 야구가 발달했다는 것입니다(아이러니하게도 영국에서는 야구의 인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크리켓과 라운더즈가 미국에서도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발전하여 지금의 야구와 같은 스포츠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야구가 서서히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면서

세계 최초의 야구팀이 조직되고 현대야구와 같은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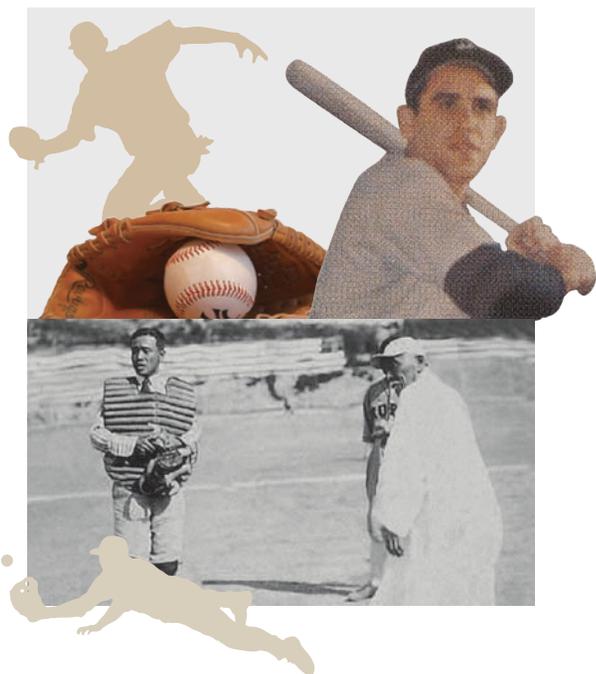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야구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최초의 야구단을 소재로 하여 <YMCA야구단>이라는 영화가 2002년에 개봉되기도 하였습니다). 1982년에는 6개의 프로야구단만이 창설되었지만 현재는 10개의 프로야구단이 존재할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야구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구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스포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야구란 각각 9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며 점수를 내는데 거기서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는 구기 종목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야구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스포츠 같지만 생각보다 규칙이 복잡해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구는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됩니다. 두 팀 모두가 서로 1번씩 공격과 수비를 했을 때 1회(또는 1이닝)가 끝났다고 하며 야구는 일반적으로 9회까지 마쳤을 때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 때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 만약 9회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두 팀이 무승부라면 연장전을 진행합니다. 각 회는 또 초와 말로 나뉘는데 만약 1회 초에 A라는 팀이 공격을 했다면 1회 말에는 A팀이 수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원정팀<sup>1)</sup>(경기구장을 홈구장으로 쓰지 않는 팀)이 초에 공격을 하고, 홈팀이 말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격이란 쉽게 말해서 공을 치는 것이고 수비란 공격팀이 점수를 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의 공격 때마다 공격

팀에게는 3개의 아웃이 주어지게 되고 3개의 아웃을 수비팀이 다 잡게 되면 공격과 수비가 바뀌게 됩니다.

위와 같은 설명과 함께 글로만 읽다 보면 야구가 별로 재미없는 스포츠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구장에 가서 여러 사람과 함께 응원하다 보면 야구가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흥미롭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TV 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야구장에서는 매 이닝 사이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 응원하는 재미 이외에도 많은 재미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야구장마다도 특색이 달라 야구장에 한 번 갔다 오게 되면 야구장 탐방의 즐거움에도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SK 와이번스가 정규시즌 1위 팀인 두산 베어스를 물리치고 우승하면서 2018년의 야구는 다 끝났습니다. 올해의 야구는 다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9회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야구를 다 함께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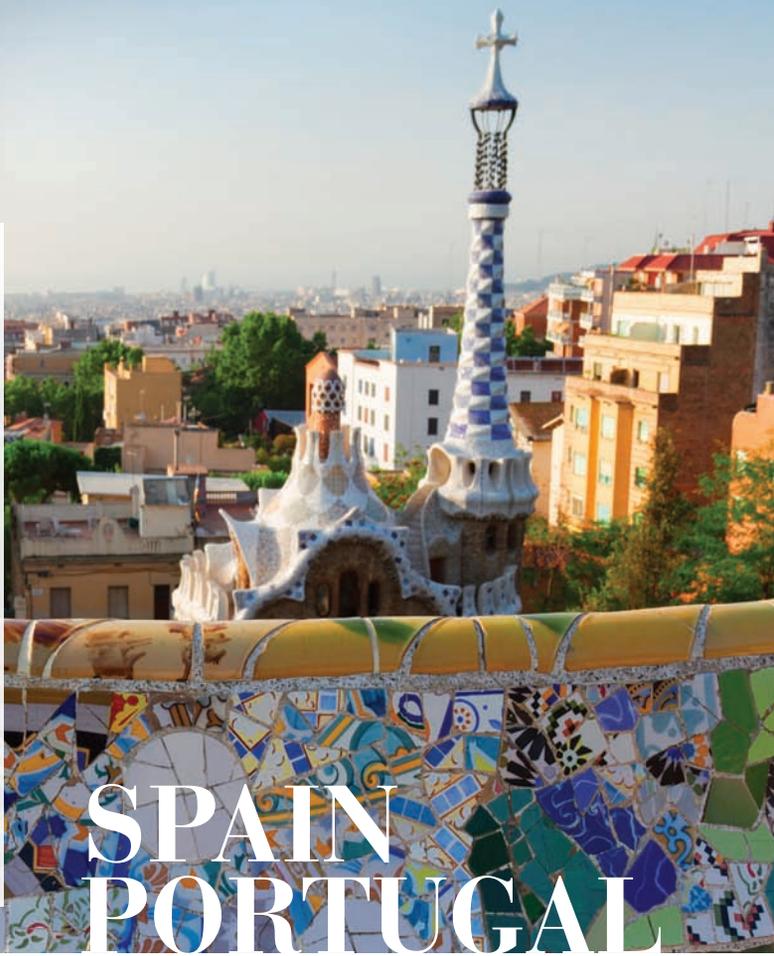
1) 보통 야구는 어느 한 지역을 연고지로 하고 있습니다. 연고지에 있는 야구장(홈구장)을 쓰는 팀을 홈팀이라고 합니다. ex) 서울 - 두산베어스, LG 트윈스 등

## 스페인 · 포르투갈 법원 방문기

글. 어재원 판사(대구고등법원)

저는 2015년도에 운이 좋게도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법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연수단의 총무로 선정된 것이어서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글은 법원가족 여러분들 중 혹시라도 장래에 국제화연수단의 총무로 선정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2015년도의 기억을 되살려 국제화연수단의 총무로서 국제화연수를 준비하고 방문국가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공유하고자 쓰게 되었습니다.



# SPAIN PORTUGAL

### 국제화연수를 준비하며

저는 2015. 4. 3. 국제심의회관실로부터 특정 주제 국제화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니었고, 추천해주신 분께서도 아무런 언질이 없어서 메일을 받고 조금은 의아하였습니다. 위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던 중 제가 총무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제가 당시 해외여행의 경험이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여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준비한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걱정부터 덜컥 들었습니다. 제가 메일을 받아보고 국제심의회관실에 전화를 하였더니 연수국가와 도시와 연수계획을 알려주면 비행기 및 숙소 예약과 방문 법원의 섭외 등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국제심의회관실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래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함께 국제화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신 판사님들로부터 방문 희망 국가(도시)와 방문 일정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

하여 2015. 10. 1.부터 2015. 10. 9.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스페인(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문 법원은 국제심의회관실을 통하여 마드리드 자치도 지역법원(AUDIENCIA PROVINCIAL DE MADRID)과 리스본 중앙형사법원(The Criminal da Instância Central do Tribunal da Comarca de Lisboa)을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사항들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연수 일정은 국제심의회관실에서 교섭한 여행사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방문 국가(도시)와 일정을 결정할 때 해당 국가의 공휴일이나 법원·기관의 휴정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 일정 중 법원이나 기관의 휴정기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방문 국가(도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방문 법원의 교섭을 위하여 경력서(CV)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작성할 때에는 코트넷의 종합법률정보에서 '각급 기관 및 지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문 일정을 기준으로 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여권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스페인으로 출국

저희 연수단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암스테르담 스키펀공항(Amsterdam Airport Schiphol)을 경유하여 스페인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이동은 비행기와 공항리무진, KTX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바로 연결되는 KTX 노선이 있었으나, 2018. 8.부터는 위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었으므로 KTX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공항철도를 이용하거나, 광명역에 있는 도심공항터미널의 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출발하는 비행기의 시간과 수하물의 양 등을 고려하여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출국은 국제심의관실에서 교섭한 여행사의 직원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기만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위 직원이 연수에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비행기 좌석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등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됩니다. 장시간 비행을 할 경우 일반석을 이용하게 되면 피곤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 마일리지 가 있을 경우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좌석등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수단이 경유한 암스테르담의 스키펀공항은 유럽을 대표하는 허브공항답게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규모가 큰 데다 터미널도 여러 개여서 미리 출발하는 터미널의 홀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길을 잃거나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경우에는 대한항공 현지 직원의 안내에 따라 무사히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도착하여서는 국제심의관실에서 교섭한 여행사의 현지 직원이 나와 있으므로 입국 수속만 마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스페인 현지에 도착하여 저희 연수단을 태운 차량이 너무 크고 시설도 좋아서 감탄하였는데, 위 차량의 운전자가 저희를 자신의 승객으로 오해하여 잘못 태운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저희의 짐을 위 차량에 실어준 옆 차량의 운전자가 원래 저희가 탑승할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위 운전자는 자신의 승객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스페인 연수일정 둘째 날 저희 연수단을 시내에 내려주고는 갑자기 사라진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 마드리드 자치도 지역법원

#### (AUDIENCIA PROVINCIAL DE MADRID) 방문

저희 연수단은 국제심의관실에서 미리 교섭한 마드리드 자치도 지역법원이 정해준 일정에 따라 위 법원을



마드리드 자치도 지역법원 건물 전경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심판관이 미리 교섭한 현지 통역인이 동행하였습니다.

마드리드 자치도 지역법원은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은 13층의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마드리드 자치도 지역법원장[에두아르도 포레스 오르티스(Eduardo Porres Ortiz)]과 접견을 하고 위 법원장으로부터 법원의 소개와 스페인 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드리드 자치도 지역법원은 검찰청과 따로 위치하고 있고,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으로 나뉘는데, 형사법원의 경우 제1심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에서 처리한 사건 중 항소된 사건과 법정형이 5년을 초과하는 형사사건(1심)을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법원은 총 15개의 부로 나뉘고, 각 부별로 5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총 75명의 판사가 형사재판을 담당하고(재판의 진행은 3명이 하지만 각 부의 판사 5명이 모든 사건에 관하여 함께 합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사법원의 경우도 15개의 부로 나뉘고, 각 부별로 보통 4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총 60명의 판사가 민사재판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형사법원의 경우 각 판사가 1년에 선고하는 판결문 수는 약 450건 정도로서 1개의 부에서는 총 2,5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민사법원의 경우 각 판사가 1년에 선고하는 판결문 수는 약 250건 정도로서 1개의 부에서 총 1,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연수단이 위 법원에 방문하였을 때 함께 방문한 네덜란드의 판사는 네덜란드에서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약 30건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위 법원의 법원장과 접견 자리에 참석하였던 다른 판사님들은 한국 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수를 듣고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놀라워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을 방청하였는데, 법대의 높이와 검사·변호인석, 배심원석, 피고인석의 높이가 모두 동일한 것과 법대의 오른쪽에 검사, 피해자의 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인 순으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 변호인도 자신의 법복을

입는 것, 법원 직원(세크레타리아, 한국 법원에서의 직위로 따지자면 법원사무관에 해당)이 법대의 판사 바로 옆에 착석하는 것, 그리고 모든 재판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재판 모습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법원 방문 시 연수단의 총무는 사진 촬영이나 인터뷰 녹음 및 속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영문으로 된 법원 홍보 책자와 소정의 선물도 전달하게 되는데, 위 책자와 선물은 국제심판관이 준비하여 연수단의 총무에게 택배 등을 통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이를 총무가 잘 챙겨야 합니다.

또한 영문의 명함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국제심판관실에서 준비한 선물 이외에도 방문 법원의 관계자들을 위한 선물 등 기념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뮤지엄샵을 이용하여 대법원의 로고가 인쇄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리스본 중앙형사법원(The Criminal da Instância Central do Tribunal da Comarca de Lisboa) 방문**

저희 연수단은 국제심판관실에서 미리 교섭한 리스본 중앙형사법원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위 법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심판관이 미리 교섭한 현지 통역인이 동행하였습니다.

리스본 중앙형사법원은 리스본 법원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은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위 법원 단지에는 민사 및 노동 관련 법원은 입주해있지 않았습니다. 위 법원에 도착하여 리스본 중앙형사법원장[아멜리아 마리아 도 레이 까다리노 코레이아 제 알메다 (President of the judicial district court of Lisbon, Amélia Maria dos Reis Catarino Correia ge Almeida)]을 만나 환영 인사와 더불어 방문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리스본 법원 단지가 1998년 이전된 후 외국 법원을 포함한 외국 기관에서 공식 방문한 것은 저희 연수단이 처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장의 안내에 따라 법정과 판사의 집무실, 법원 직원 사무실을 견학하였습니다. 본 법원 단지는



리스본 중앙형사법원 8층 회의실에서 바라본 리스본 태조(Tejo) 강의 전망

리스본 엑스포 개최 후의 엑스포 단지를 법원 건물로 활용하는 신식 건물이어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최초 설계 당시 법원 건물로 설계되지 않아 구속피고인과 일반인들의 동선이 겹쳐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정은 법대를 기준으로 그 맞은편에 피고인석이 있고, 그 앞에 증인석이 있으며, 법대와 증인석 사이에 속기사석이 있고, 법대의 좌·우로 변호인석이 있고, 법대의 재판장석 우측에는 경력이 높은 판사가 배석하고, 그 옆에 검사석이 있습니다. 검사석이 법대에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법정 녹음은 실시하고 있고, 법정 녹화는 당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각 재판부의 법정이 재판부의 집무실과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형사재판은 종이소송기록으로 진행하나, 민사재판은 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형사재판을 방청하였는데, 첫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증인을 신청하여 재판부에서 이를 채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할 때 수사기록 전부를 법원에 송부하는 것이 한국 법원과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형사재판 방청을 마친 후 법원장 및 다른 판사님들과 포르투갈의 사법제도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포르투갈도 한국의 법원과 같이 여성법관의 수가 많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고 하였고, 고등법원의 판사 인사의 경우 15년 경력을 가진 법관으로부터 인사희망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다음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고등법원에서는 소거나 법정형의 구분 없이 모든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고, 1심 합의부 재판의 경우 판사 1인당 한 달에 3~4건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편인데,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과 많은 교류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리스본 중앙형사법원의 방문을 마친 후 법원장께 메일로 포르투갈의 사법제도에 관한 (영문)책자를 요청하였더니, 법원장께서 포르투갈의 사법제도에 관한 책자의 파일을 전송하여 주었고, 이는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꽤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지 법원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파악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제화 연수를 마치고

국제화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연수단의 총무는 국제심의관실에 약 20장 분량의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작성이 총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찰 수 있으니, 국제화연수 준비단계에서 다른 판사님들과 협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치며

법원의 담당자로부터 <법원사람들> 원고 작성을 요청받은 후 글재주도 없고, 평소 별다른 취미나 흥미도 없어 많은 고민 끝에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법원에서 한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국제화 연수 과정에서 총무로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글로 쓰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장래에 운이 좋게 국제화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불행히도 총무로 선정되신 법원가족 여러분에게 저의 글이 조금의 도움이나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 어린이 소식지

January 2019

<http://museum.scourt.go.kr/courtmuseum/DcBoardListAction.work?gubun=3>

| NO. 16

## 징역과 금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뉴스 기사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를 내렸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징역 몇 년이 내려졌다고도 하고, 금고 몇 년 혹은 구류 몇 일이라는 말도 보게 되는데, 무슨 뜻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자유를 빼앗는 벌을 '자유형'이라고 말하는데, 그 종류가 바로 징역, 금고, 구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징역'은 죄를 지은 사람을 형무소에 가두어 놓고 어떤 일(노동)을 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말대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감옥에 갇혀 살게 되는 벌이고, '유기징역'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선고를 내릴 때 징역 ○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것이 유기징역입니다.

두 번째로 '금고'는 형무소에 가두고 자유를 뺏는 것은 동일하지만, 징역처럼 노동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역과 금고는 노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밖에 세 번째의 형벌인 구류는 금고처럼 노동은 없이 자유만 빼앗기는 벌인데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 비교적 약한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죄를 얼마나 저질렀는지 그 종류와 무게에 따라 자유형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현초 5학년  
박지완 어린이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방청기

지난 11월 29일(목)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중계 카메라, 대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을 보면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개변론은 먼저 대법원장의 공개변론 취지와 진행순서 설명, 양측 소송대리인의 변론, 참고인들의 의견 진술, 재판부의 질문과 이에 대한 양측의 답변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판단을 위한 신중함과 재판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추후 대법원은 공개변론의 내용과 사건 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통로로 많이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대법원 어린이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원에 대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도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에도 대법원 어린이기자단의 멋진 활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남사초 5학년  
최예인 어린이기자

##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글: 편집부

# Q

아파트 경비원인 원고들은 점심 및 저녁식사 휴게시간(12:00~13:00, 18:00~19:00), 야간 휴게시간(24:00~04:00)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실에서 가면(Parasleep, 일명 ‘일탈 수면’이라고도 하며, 이는 머리의 활동과 몸의 활동이 따로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즉, 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였음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A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한편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법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사례와 유사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① 아파트 경비원인 원고들이 원고들을 고용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로부터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②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③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④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⑤ 피고의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휴게시간이 방해 받았는지, ⑥ 이와 같은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참조).



# & Trend Lounge

공감하는 즐거움

새해 목표를 '건강'으로 세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몇 년 사이 40-50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안과 질환, 황반변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더 이상 환경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지요? 필(必)환경시대를 맞아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문화와 기업 사례도 탐구해봅니다. 법원의 이모저모를 담은 법원 뉴스와 독자 당첨자 발표는 물론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진 '빈칸 QUIZ'도 준비했으니 꼭 도전해보세요.

공감하는 즐거움 — 미디어로 보는 질병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황반변성’**

글. 김연수(의학 칼럼니스트)



황반변성은 더 이상 노인들의 질환이 아니다. 최근 40~50대 연령층에서 발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예능에 출연해 황반변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출연자의 사례는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잘 알아야 예방하고 고친다. 눈 건강을 망치는 질환, 황반변성을 탐구해보자.

### 황반변성이 심상치 않다

SBS 예능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한 배우 인교진 씨가 황반변성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았다. 인교진 씨는 평소 컴퓨터 게임을 자주 즐겨 남편의 눈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 소이현 씨와 대립한다. 부부는 이 문제로 함께 병원을 찾기도 한다. 황반변성은 과연 어떤 병일까? 황반변성은 쉽게 말해 황반부의 망막세포에 변화가 생기는 병이다. 노란 원반 모양의 황반은 안구 앞 부분인 동공을 기준으로 반대편인 안구 뒷부분에 위치하는 기관이다. 크기는 작지만, 전체 시력의 90%를 차지할 만큼 망막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시야가 왜곡되는 것이다. 글자가 흔들려 보이고 직선이 굽어 보인다. 책이나 신문에

서 공백이 느껴지기도 한다. 주변 시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신, 중심 시력에 영향을 끼치는 질환 특성상 사물 중심이 까맣게 보이기도 한다.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과 물체의 색이 이상하게 보이는 변색증도 발생한다. 증상을 방지할 경우 심한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소이현 씨가 남편 걱정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황반변성을 앓는 환자도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황반변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 2013년 14만 430명에서 2017년 27만 2638명으로 단시간에 약 2배가 증가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병이 과거에는 주로 노년기에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40~50대에서도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발견은 빠를수록 좋다

황반변성의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망막에 노폐물이 쌓여 저산소증이 발생, 황반 부위 신경세포가 서서히 퇴화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망막과 안구벽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맥락막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고, 이 혈관에서 누출된 혈액이나 액체가 원인이 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망막과 맥락막은 우리 몸에서 단위 체적당 혈액이 가장 왕성하게 흐르는 조직이다. 비정상적인 혈관을 만드는 주요 원인은 노화이다. 이밖에 자외선 노출, 고지방·고열량 식습관,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심혈관계 질환, 유전 및 가족력 등도 요인이다. 흡연도 중요한 위험인자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금연을 권장한다.

황반변성은 조기 발견과 치료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암슬러격자는 가장 쉬운 자가검진 방법이다. 암슬러격자는 5mm 간격의 백색 격자로 구성된 바둑판처럼 생긴 흑색 사각형 카드이다. 30cm 거리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격자 중심의 점을 주시한다. 이때 중심점 주위의 선 일부가 안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인다면 안과를 가보는 것이 좋다.

### 블루라이트를 조심하라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무엇일까? 40세 이상이 되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매년 안과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자각할 만한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는 병의 특성 때문이다. 특히 고도근시나 망막질환 등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전자기기 사용이 빈번한 경우라면 좀 더 신경써야 한다. 블루라이트는 눈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므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사용 시 눈을 의식적으로 깜빡이거나 잠깐씩 쉬게 해준다. 스마트폰은 40~50cm 떨어뜨리

고 정면에서 30도 아래에 두고 사용해야 눈이 덜 피로하다. 또한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 및 치료하고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 되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추천한다.

### 예방하는 음식 따로 있다

색깔이 짙은 과일과 채소가 도움이 된다. 붉은색 과일에는 안토시아닌과 리코펜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많다. 토마토가 대표적이다. 파인애플이나 오렌지 같은 노란색 과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실제로 호주 시드니대학 웨스트미드 의학연구소(Westmead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의 바미니 고포나트 교수 연구팀이 50세 이상 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진행한 조사 분석한 결과, 오렌지를 매일 하나 이상 먹은 사람은 전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황반변성 발생률이 60% 이상 낮았다. 초록색 채소로 꼽히는 시금치, 브로콜리, 배추 등은 노화 예방 효과로 황반변성을 예방한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작용이 있어 황반변성의 발생과 관련된 안구 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밖에 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도 좋다. 차가 눈에 부족하기 쉬운 물을 보충해주기 때문이다. ☞



공감하는 즐거움 —— 트렌드 이슈



친환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 필(必), 환경시대

글. 이경석(조선일보 행복플러스 기자)

친환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필수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필환경시대를 지향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알아본다.

### 포장할 수 없습니다, '패키지 프리' 매장

일상 속에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는 친환경시대를 이끄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국내에서도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필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패키지 프리' 매장도 눈길을 끈다. 서울 성동구의 '더 피커'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그로서란트(Grocerant, 식료품점과 레스토랑의 합성어) 매장이다. 과일과 곡류 등을 판매하는 이 마켓은 소비자가 직접 용기를 가져오거나 매장 내 판매 중인 생분해 용기에 담아서만 제품 구입이 가능하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일찍 감지됐다. 2014년 문을 연 독일의 '오리지널 언패어팩트'는 포장재가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식품을 판매한다. 직접 장바구니를 가져와 포장되지 않는 식품을 사야 한다. 뉴욕의 슈퍼마켓 '더 필러리'도 식재료를 소비자가 직접 가져온 포장 용기에 담아 구매해야 한다. 한편, 영국 시장조사기관 민텔(Mintel)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80%가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52%가 포장하지 않는 '노 패키징' 제품을 사겠다고 대답했다.

###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패션, 컨셔스 패션

패션 업계에서는 컨셔스 패션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컨셔스 패션(Conscious Fashion)은 ‘의식 있는’이라는 뜻의 컨셔스(Conscious)와 패션(Fashion)의 합성어로 소재 선정부터 제조 공정까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생산되는 의류 및 그러한 의류를 소비하려는 트렌드를 말한다. 지난 10년간 최신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 및 유통하는 ‘패스트 패션’이 유행했다면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는 컨셔스 패션으로 관심이 기울었다. 글로벌 아웃도어 기업 ‘파타고니아’는 오래 전부터 컨셔스 패션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2011년 전개한 ‘우리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 캠페인은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제품을 만들 때 환경 오염이 유발되니 건강한 세상을 위해 물건을 구매하기 전 심사숙고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듬해 매출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전년 대비 30%나 성장했다.

### 쓰레기를 명품으로, 업사이클링

컨셔스 패션의 등장과 함께 업사이클링 제품도 주목 받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단순한 리사이클링(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더해 친환경제품으로 리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버려진 ‘쓰레기’를 가치 있는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프라이탁’은 업사이클링 문화를 꾸준히 실천해온 기업이다. 쓰레기로만 여겨졌던 타폴린이라는 방수천, 자동차의 안전벨트, 폐자전거의 고무 튜브 등을 소재로 활용해 가방 등 다양한 패션아이템을 생산한다. 매년 20만 개가 팔려나가는 이 브랜드의 인기 비결은 희소성. 서로 다른 방수천을 원단으로 사

용하다 보니 가방이 모두 다르다. 한편 페타이어로 신발을 만드는 국내 사회적 기업 ‘모어댄’도 프라이탁과 유사한 행보를 보인다. 버려지는 카시트 가죽, 안전벨트, 에어백 등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든다. 모어댄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회적 기업 가운데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 쓰레기 배출 원천봉쇄, 프리사이클링

사전에 쓰레기 배출 자체를 차단하는 것 역시 필환경시대에 발맞추는 좋은 방법이다. 프리사이클링(Precycling)은 ‘미리’를 뜻하는 접두사 ‘Pre’와 재활용을 의미하는 ‘Recycling’을 합친 합성어다. 직역하면 ‘사전 재활용’이란 의미이다. 국내 기업 ‘나무리프’는 캄보디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낙엽을 이용해 무화학 무코팅 그릇을 제작한다. 자연 훼손 없이 떨어진 낙엽만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폐기된 제품은 땅속에서 60일 안에 분해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폐기물 처리로 인한 자연 훼손을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캄보디아 지역 주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마더스콘’은 옥수수의 전분을 원료로 한 영유아 식기를 만드는 국내기업으로 폐기 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DIN, VINCOTTE, BPI’의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



### 제13회 전국 법원 사서 세미나 개최

법원도서관장 허부열은 2018. 11. 30.부터 12. 1.까지 법원 도서관에서 국장, 조사심의관, 과장 및 전국 법원 사서직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전국 법원 사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허부열 도서관장은 "법원도서관 변혁의 시기에 그 역사적 현장에서 도서관을 사랑하고 아끼는 전국 법원 사서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도서관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법원도서관의 역할 확대와 사서 역할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비전과 희망이 있다면 그 길은 고속도로보다도 더 넓고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세미나는 적정마케팅연구소 김철환 소장의 '소셜미디어 시대의 온라인 홍보'에 관한 전문 강의를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김경화 사서행정관의 '2018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가 보고', 법원도서관 장다혜 사서행정관의 '국제법



률도서관협회(IALL) 총회 등 참가기'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이전 개관 준비 중인 법마루(본관 열람실)를 견학한 후 법원도서관 대국민서비스 및 홍보의 다양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은 복합 문화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의 제조공정과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고 2018년도 전국 법원 사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및 물품 전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양형권)은 2018. 12. 03. 부천지원 소회의실에서 부천지원 조정위원회와 함께 '사랑의 급식비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양형권 지원장은 부천정보산업고, 원미고, 경기경영고 등 관내 6개 학교에 급식비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부천지원 법관과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에 조정위원회가 성금을 보태 마련하였습니다. 김효경 원미고 교장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많고 학교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8. 12. 12.에 '세상을 품은 아이들' 6호 기관을 방문하여 겨울이불 16



개 및 당일 점심 외식비를 전달하였습니다. 양형권 지원장은 기관에 보호 중인 학생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간다면 훗날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천지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와 함께하는  
제5회 소통 아카데미 ‘인생은 마라톤이다’**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은 2018. 12. 12.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봉주 선수를 초청하여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주제로 2018년 제5회 소통 아카데미(팀장: 차영민 부장판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법원 소통 아카데미는 법원가족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법 검찰청, 조정위원, 시민사법위원회,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원과 연계된 외부기관과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소통 아카데미는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담당한 이봉주 선수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1998년 방콕 및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금메달, 2001년 제105회 보스턴 마라톤 우승 등 다수의 입상을 하였으며 국제대회 최다완주(41회)의 업적을 남기며 2009년 은퇴하여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마라톤 한국신기록을 보유한 국민 마라토너입니다.

이날 강연에서 이봉주 선수는 마라토너로서 늦은 출발, 평발에 짝발인 신체적 결점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노력과 마라톤을 뛰며 느끼는 데드포인트에서 포기하지 않고 차이를 만드는 기회로 생각하며 극복한 경험 등을 차분하게 강의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법원가족들에게 인생의 데드포인트를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다양한 주제로 관내 시민들과 법원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소통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 전체 봉사활동**

부산법원 이웃돕기 모임인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김형천 고법수석부장판사)는 2018. 12. 13. 15:00 부산 동구 매죽지마을 일대에서 회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 장소인 매죽지마을은 동구 도심에 위치해 있지만 동서남북으로 도로와 철도 선로로 둘러싸여 있어 고립되어 있는 형태로,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당시 형성된 피난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도심 속 오지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은 2개조로 나누어, 연탄으로 겨울 난방을 하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5,000장의 연탄을 기부 및 배달하였습니다.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과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외 19여명은 적재조로 편성되어 연탄을 지게에 싣거나 각 가정의 창고에 쌓는 일을 하였고,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외 14명은 운반조로 편성되어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을 배달하였습니다. 특히, 매죽지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어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법원사람들 원고모집

법원가족 사연을 기다립니다. 직장생활, 업무 속 에피소드 등 다양한 주제로 참여가 가능하며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스타일링룸'에 참여해 주신 분께도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원고 분량 PC로 작성할 경우 A4용지 3장 이상
- 원고 마감 수시
- 보내실 곳 법원사람들@scourt.go.kr
- 문의전화 02-3480-1456 공보관실
- 홈페이지 http://people.scourt.go.kr

사법부 홍보를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가족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주소 http://www.facebook.com/scourt\_korea
- 트위터 주소 http://www.twitter.com/scourt\_korea
-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 유튜브 주소 http://www.youtube.com/scourt\_korea
-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court\_korea/

### 지난호 퀴즈당첨자

- 유홍규 행정관 수원지방법원
- 이선정 실무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정상원 실무관 대구서부지원
- 황유성 법원조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홍선기 실무관 고양지원

### 지난호 퀴즈정답



### 빈칸 QUIZ

- 1 그루터기에서 10개 정도의 줄기가 낮고 고르게 퍼진 '○○○'은 주변 나무의 햇살을 가리지 않으면서 줄곧 도도한 기상을 자랑하여 춘천지방법원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 2 법원도서관이 '○○○'로 새롭게 태어났다. 법원도서관이 지난 12월 11일 일산 법원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법원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법원사람들>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내용과 디자인을 리뉴얼한 <법원사람들> 1월호에 대한 소감을 '빈칸 QUIZ'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퀴즈 2개 답을 모두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답으로 인정되며, 해당 월 20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법원사람들@scourt.go.kr    •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 소감과 빈칸 QUIZ 정답을 모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하여 매월 추첨을 통해 대법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 친절한 두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김수영.강병우 행정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종합접수실

얼마 전 공탁금을 찾는 문제로 김천지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가 공탁금 찾는 방법을 문의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6번 창구 신청담당자 김수영 님', '7번 창구 공탁담당자 강병우 님'의 친절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 마냥 어려울 것 같은 공탁금 신청과 수령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상담과 도움이 없었다면 전 아마도 소정의 돈을 써서 법무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중에도 이것저것 물어보는 저에게 싫은 내색도 없이 웃으면서 친절히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제가 다 죄송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일 처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이 ○ ○

THANK YOU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용가능



[egdrs.scourt.go.kr](https://egdrs.scourt.go.kr)

2019. 1. 1.부터는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